



기독교세계관 목회 리포트 | 서초구 새로운교회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꿈꾼다

글 편집부

최근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가톨릭과 불교는 성장하는데, 개신교 교회는 매년 약 5백 개씩 줄어, 한때 6만개를 자랑하던 개신교 교회가 5만개로 줄었다. 그 중에 4만개 가까운 교회가 백 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개척한지 10년이 지나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 개척교회의 반이 넘는다. 이러한 어두운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쳐,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운동을 통해 새로운 바람 일으켜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들을 소개한다.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교회이다. 새로운 교회는 2009년 9월 6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한홍목사가 박은영 목사와 파트너십을 이뤄 약 50명 정도의 초기멤버들과 함께 창립되었다

새로운 교회의 3대 비전은 “세상 속으로(into the Market place)” “열방 속으로(into the Nations)” “미래 속으로(into the Future)”이다. 이러한 3대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각자가 새롭게 되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척 첫 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전 교인의 훈련에 역점을 두었다.

처음 4개월은 새벽기도와 주일예배에 충력을 기울이고 소그룹 순모임을 만들었다. 5개월이 지난 2010년 2월부터는 성경 전체를 읽는 Bible Maste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먼저 직장인들을 위해 성경 66권이 담긴 MP3 플레이어와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성경을 읽어나가게 했다. 2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하고 시작했는데, 조별로 촘촘히 서로를 챙기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칫 낙오의 위험이 있는 ‘폭탄’들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며 잘 버텼다고 한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다들 놀랍게 삶이 바뀌어들 갔다. 한 달 후에는, 여성 주간반 100명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직장인반보다 2배로 진도가 빨라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 또한 강력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LCS (Life Coaching School)을 출범시켜, 60명이 1기 교육을 마치고, 현재 2기를 준비 중에 있다.

훈련 과정 LCS(Life Coaching School):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최고 수준의 전문 영성 훈련이다. 나눔과 과제, 아웃리치 과정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영성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남성 성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활동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세상 속으로’라는 교회 비전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삼아 전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세움짐에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교인들의 모습을 창립 1주년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책자로 소개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한홍목사는 개척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새로운 교회의 3대 비전



세상속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전문인 및 리더십 양성 21세기 한국형 클라팸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세상속에서 전도지향적소그룹을 인도하며, 세상 속의 각종 컨퍼런스 및 훈련 프로그램에 강사와 참가원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세상과 다리를 놓는데 전력을 다한다.



열방속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세계 주요 문화를 끌어안는 글로벌 예배와 사역을 적극 기동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의 15세대 및 외국어권 리더십을 적극 품는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격려하고, 네트워크 크시킨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출장다니는 비즈니스맨 멤버들을 적극 활용한다.



미래속으로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한국어와 섞은 이중 언어로 진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주일학교 시스템을 지향한다. 또한 유학 갔다가 방학때 돌아온 자녀들을 위한 여름과 겨울의 특별 영성 훈련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온라인 교회 시스템의 인터넷 화상채팅 및 블로그를 적극 활용, 국내외에 흩어진 자녀들도 항상 온라인상의 소그룹에 속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장년과 청년, 청년과 중고등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연결시키는 시디리시멘 토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좋은 자연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패밀리 프로그램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개척교회들이 살아야 한국교회 전체가 산다고 하면서 개척교회를 도와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개척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아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교회는 대부분 개척교회라고 주장한다. 한홍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겼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비로소 목회를 완전히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새로운교회도 개척교회이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개척 2개월 만에 맞이한 첫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했고, 지난 해 두 번째 맞이한 추수감사절에도 헌금 전액을 한국 내 미자립 교회, 외국인 노동자, 해외 선교사 등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직 예비당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러브펀드를 만들어 베푸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교회는 개교회 주의와 물량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과 문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님이요 구원이다. 그러나 문화는 나이, 상황, 지역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문화란 한 시대의 가치관, 생활습관, 음악, 건축, 문화, 영화, 연극, 패션, 스포츠, 디자인, 미술, 기타 트렌드를 총괄적으로 일컫으며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모든 것이다. 문화는 파도처럼 밀려온다. 교회가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화에 휩쓸리면 죽지만, 파도를 타면 기막힌 스포츠가 된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되어 한다. 복음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다. 문화가 꼭 있어야 한다. 마치 물과 그릇과 같다.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냥 먹을수 없다. 그릇이 꼭 있어야 물을 먹는다. 그것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다. 복음을 그냥 먹을수 없기에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좋은데 문화가 타락하면 기독교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교회와 세상은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파도와 폭풍이 올 수 있지만 배는 간다.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좀 생각해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물” 들고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도 현실을 도피해서 신으로 갈 수 없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한 홍 목사의 목회일지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회 프로그램

한 흥 목사는 한국 교회의 문제로 획일화를 들었다. 지역교회들의 목회 패러다임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형교회들이 하는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접목시키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보다는 담임목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흥목사는 청소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장한 교포 1.5세대. 그리고 대학에선 정치외교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제화된 3,4대 도시 직장인 남성들이 자신의 설교와 목회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고 서울 서초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조그만 클래식 음악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린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예배 참석인원이 1,200명이 넘었다. 그러나 새로운교회는 또 하나의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새로운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한 흥 담임목사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4세때 미국으로 이민,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담임목사(1999-2008)와 햇빛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으로 섬겼으며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라,’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거인들의 발자국,’ ‘칼과 갈집’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박은영 목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생화학 석사(M.S)를 받은 후 실험실에서 근무하다 귀국후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받았다.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사역본부장과 예수제자학교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흥 목사와 새로운교회를 개척해서 기획과 리더십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박담회 목사 마이애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JCI 세계상임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탈봇 신학을 졸업하며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데 공헌했으며 현재 새로운교회의 예배행정을 총괄하고 있다.